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공모 최종 선정

더(THE) 영광 스마트 복합쉼터 국비 35억원 확보 칠산대교 입구 10224㎡ 부지 친환경 인프라 구축

영광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국도변 졸음쉼터에 체험, 관광, 정보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더[THE] 영광 스마트 복합 쉼터'

는 칠산대교 입구 10,224㎡ 부지에 전 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건축 디자인 공모를 통해 경관과 조화되는 안락한 쉼 공간이 마련된다. 이번에 건설되는 쉼터는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20억원, 수소차 충전소에 15억원 등 국비 35억원, 농특산물 판매장, 휴게소 등 편의시설

조성에 국비 28억원 등 총 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전국 총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남도에서 영광, 무안, 신안, 구례 등 4개 시군이 신청하여 지난 1월부터 사전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영광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군은 향화도 일원에 추진중인 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 및 국가어항 조성, e-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초등학교 대상 비정시안 굴절 교정 운영

무안군은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들의 조기 시력교정을 위해 '비정시안 굴절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초등학교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시력저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업 수행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지난 2016년부터 초당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하여 시력교정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매년 관내 초등학교 5-6개교를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3,510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았다. 그동안 검사자의 약 35%가 시력저하 현상을 조기 발견하여 무료 안경 맞춤과 시치료 훈련을 지원 받았으며, 군은 정기적인 검사 안내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부모들은 "농촌 형편상 자녀들을 적기에 안과에 데리고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군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분에 안경 맞춤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굴절 이상안 교정은 학생들의 학습 수행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근·현대 사진자료 모집...영암의 발자취 되짚어본다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근·현대사' 발간



영암군은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근·현대사' 책자 발간을 위해 3월 말까지 군민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1930년대에서 최근까지 영암의 시

대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을 모집한다.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근·현대사'는 근·현대사 속에서 변화된 영암군

의 발자취를 사진 자료로 재조명하여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 군의 정체성과 역사를 알려 미래 발전의 지표로 삼음과 동시에 사료로서 후손들에게 남기며 영구히 보존하고자 제작되는 사진자료집이다. 책자는 영암군의 생활, 문화, 산업, 공공기관 등 분야별 변화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50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하게 된다. 군에서 기보관 중인 영암군 과거 모습 사진을 포함하여 군민과 관련 기관단체 및 학교에 보관 중인 사진

을 연도별, 지역별 구분 정리하여 금년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책자에는 군민의 삶과 생활사, 기관모습, 농경사회, 재난재해, 읍면별 시대변천사 등의 사진 자료가 수록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민과 향우 개인 및 기관·단체가 소유한 사진자료를 수집하고자 3월을 집중 모집 기간으로 정하여 군 홍보체육과 홍보팀,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사진을 모집할 계획이며 인화사진 또는 필름의 경우 디지털화(스캔) 후 소유자에

게 다시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책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유관기관에 비치·배부하게 되며 군의 역사와 발자취를 홍보하는 자료이자 향토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근·현대사" 발간을 위해 개인 및 기관(단체)가 보유한 사진 집중 수집 발굴의 협조를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책자 발간으로 군민들과 향우들에게 군의 역사를 소개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영암군민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비상 운영

본청 모든 출입문 폐쇄 민원봉사실에 접견실 운영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바짝 당기고 있다. 목포는 설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에 처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청사 방호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고, 본청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 조치했다. 또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봉사실에 민원접견실 운영을 재개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시는 가족간, 지역간, 직장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공적 기강 확립에도 다시 고삐를 쥐고 있다. 시는 근무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불필요한 이동 및 외출 자제, 사적 모임 금지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다시 주지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3월 정례조회, 3월 시정현안회의 등 계획했던 행사와 회의를 잇달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지난 1일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도 당초 계획했던 타종식을 취소하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3.1독립운동탑 참배만 실시했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신안군에 감사패 전달

신안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호국영웅의 영예로운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회장 노무식)로부터 지난 26일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노무식 회장은 지난해부터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90세 이상 유공자에 한해서 20만원을 지원하고 격전지시찰 및 안보현장 견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6.25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받아 유공자들의 감사의 뜻을 기념패에 담아 전달했다. 박우량 군수는 9.28. 서울수복 당시, 중앙청에 최초로 태극기를 게양한 대한민국의 전쟁영웅이신 박정모대령의



고향인 우리 신안군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호국영웅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

라며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한민국 참전유공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전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어린이보호구역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무안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 녹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변 가로수 사이 공간에 피복지를 조성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남악초등학교 주변 도로 약 500m를 정비하여 계절별로 색채감 있는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할 예정이며, 조성과정에서 학교측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사는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중 착공하여 기반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수목 식재는 활착을 감안해 9~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